

담양 메타프로방스 거센 후폭풍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하는 판결을 내려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집단 소송과 민원, 철거 대란이 우려되고 소송비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데 따른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행하는 개발 위주 관행에 제동을 건 관례에서 전국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1일 강요죄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 결정 집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우선 실시계획인가가 처분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재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조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사업특성상 공익성이 중요함에도 공익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유한회사를 시행사로 선정된 것 역시 중대 하자라고 판단했다.

"공공유원지를 만든다며 토지수용까지 했음에도 정작 수익 사업에만 몰입하고 공공투자는 포기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넉넉히 반영했다.

이로써 담양 프로방스는 실시계획이 인가된 지 4년4개월,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 지 3년10개월만에 원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져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담양군과 전남도의 행정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고, 상고심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부담한 거액의 혈세 수입료도 도마위에 올라 책임론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땅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애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설 경우 사업시행자와 담양군, 애초 평주인들 간의 예기치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고측 관계자는 "유원지 개발로

대법 '무늬만 유원지' 수익형 관광단지 변질 제동 불도저식 개발 행정과 법치 행정 무시 관행 '경중' 집단 소송·철거 대란 우려...소송비 낭비 등

포장해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실제로는 공익적 시설이나 자연환경 보전, 도시환경 미화보다는 사익에 치중해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형 사업을 펼치는 그릇된 관행에 철퇴를 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제왕적 단체장, 불도저식 행정도 '프로방스 사태'에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면밀히 살펴봐 재인이 절차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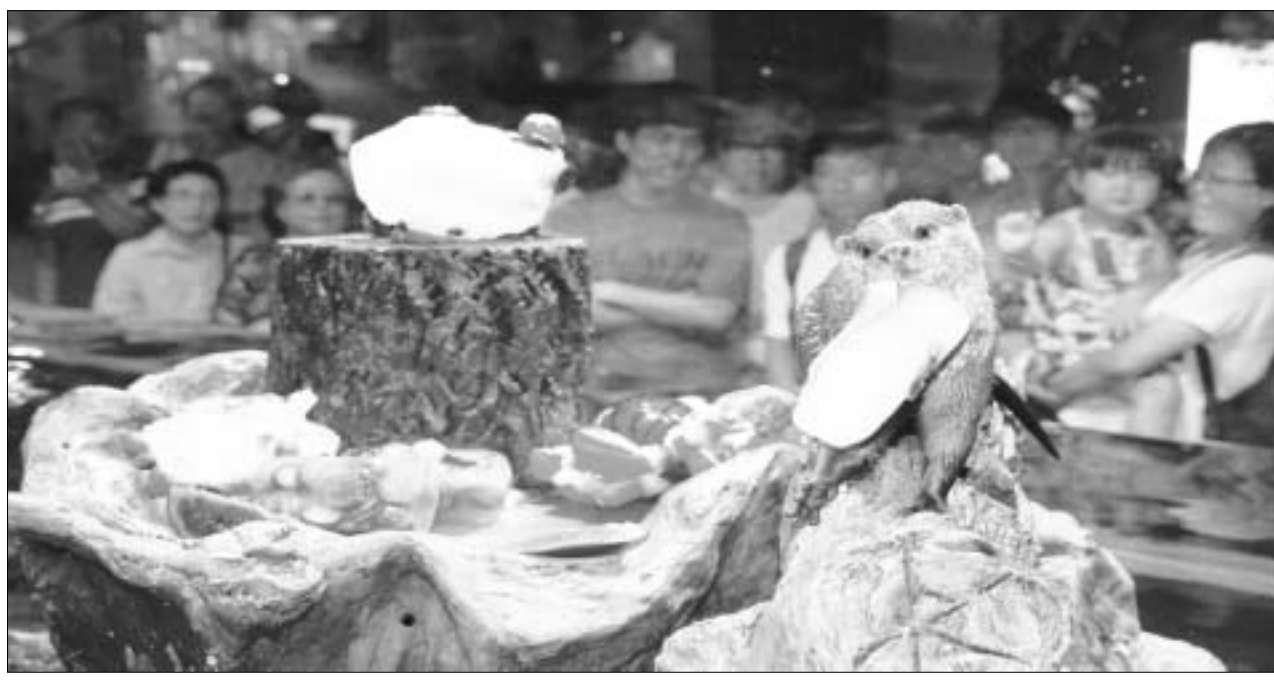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메타프로방스 진흥 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해왔다.

메타길,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 생태공원이 포함된 1단계(12만7000㎡)와 메타숲 광장, 체험학습장, 가

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3단계(5만㎡)는 담양군이 추진 중이며, 상가 59개동을 비롯, 펜션 34개동, 관광·가족호텔 2개 동 등이 포함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1단계는 85%, 3단계는 100%인데 비해 문제가 된 2단계는 70%에 그치고 있다. 상가와 음식점, 펜션은 모두 완료됐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만 터파기 상태에서 1년 이상 멈춰서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름 특식은 맛있어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작은발톱수달이 얼음에 공공 열린 닭고기와 제철 과일로 구성된 특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

여름철 짬뽕교실 없앤다...초중고 전기료 부담 20% ↓

교육당국이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의 전기료 부담을 평균 20% 낮춘다.

앞서 정부가 교실 냉방 온도 제한을 풀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름철 전기료 부담으로 교실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짬뽕교실에서 무더위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름철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을 평균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남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산

정 체계를 '검침월 피크전력'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하에서는 여름과 겨울 피크기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기본요금이 더욱 높아져 학교에서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은 더위에 시달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또 동·하계 냉난방 사용요금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똑같이 전기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 온도를 설정해 에어컨 등을 가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냉난방 온도를 정해 에어컨 등

을 가동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간(5월15일~10월15일)을 정해 교육부 내 전담 TF를 운영하고, 태풍·호우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등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름철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휴가철(7~8월)전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뉴시스



여수 해상 문어 낚시배 침몰 인명피해 없어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서외방파제 앞 해상에서 11일 낚시꾼 등 11명을 태운 4급 낚시 어선이 침몰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오전 5시 54분께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서외방파제 앞 해상에서 S호(4.6t) 선장 김 모(40)씨가 원인미상의 기관실이 침수중 이라고 구조요청을 받고 경비함 1척과 해경 구조대를 보냈다고 밝혔다.

선장 김 모 씨는 항해 중 기관실이 침수돼 제일 가까운 육지인 돌산읍 군내리 서외방파제쪽으로 배를 몰아 낚시꾼을 하선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7시 10분께 바지에 계류된 사고 선박이 완전히 침몰하면서 어선 연료인 경유가 흘러나와 선박 주변 폭 30m, 길이 100m가량의 기름띠가 퍼져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류추출을 이용한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 배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여수 국동항에서 낚시꾼 10명을 태우고 돌산 인근 해상으로 문어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했지만 30여 분만에 기관실에 물이 들어오면서 7시 10분께 완전히 가라앉았다.

여수해경은 침몰한 배를 크레인으로 인양 하고 선장과 낚시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외제차에 100원 동전 던져 파손 40대 검거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민취 상태에서 외제차량에 동전을 던져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노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도로에 주차된 강모(43)씨의 벤츠 차량 뒷 유리창면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 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이유없이 동전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노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탐문 조사를 벌여 노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노씨의 사건과 비슷한 시간대에 주거침입 신고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들 납치했다" 돈 가로챈 중국인 부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이들을 납치했다고 거짓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A(29)씨와 A씨의 아내 B(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오후 6시 사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 앞에서 C(59·여)씨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수료(10%)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북 한 지역에 사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을 선 아들이 돈을 갖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와 아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체팅 어플로 범행을 지시받았으며, '택시비를 주겠다'며 C씨를 광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옷을 바꿔 입고 가로챈 돈을 조직에 송금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행택 기자

일가족 탄 차량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의 아내와 한살배기 아들이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10시38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의왕산순환도로 판교방면 판교분기점 인근 1차로에서 A(28)씨가 운전하던 이번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나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28)와 한 살배기 아들이 숨졌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을 강하게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 도시 광주는 지금 행복한 독서 중!

질문이 많은 교실 행복한 학교

빛고을 독서마라톤

제12회

2017. 4. 7 (금) - 11. 7 (화)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